



## 북중러 연대에 대한 중국의 전략에 변화가 있는가?

이동률 (EAI; 동덕여대)

### I. 북중러 교류와 협력의 증대

북중러 연대에 북한은 적극적인 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북한, 러시아와의 교류와 협력이 빈번해지면서 중국의 북중러 연대에 대한 전략의 변화 여부가 재조명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이후 이른바 ‘신냉전론’과 ‘지정학적 요충지론’을 내세우며 미국 대 중·러의 대립 국면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정학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지지, 지원하면서 노골적으로 미국을 비난해왔다. 북한은 미중 갈등의 최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중국 편을 들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공세를 제국주의 대 사회주의의 대립 구도로 설정하고 북한과 중국간의 사회주의 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과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북한은 유엔 제재로 인한 경제난으로부터 돌파구를 마련하고, 향후에 추가 제재를 저지하는데 있어서도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

북중러 삼자내 양자간 교류와 협력이 최근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2019년에 이어 2023년에 재차 러시아를 방문하고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긴밀함을 과시했고 군사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총비서의 초청을 수락한 만큼 올해 북한을 답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4년은 중러, 중북 수교 75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다. 북중 양국은 올해를 ‘조종친선의 해’로 선포하였고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재개되고 있다. 중러 양국관계도 날로 긴밀해지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연임 확정 후 2024년 5월 첫 해외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진핑 주석 역시 2023년 국가주석 3연임을 시작한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러시아를 선택한 바 있다. 중러 정상회담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벌써 4번째다.

## II. 두 개의 장면과 북중러 연대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한 두 장면에서의 중국의 행보는 북중러 연대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 여부에 대한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첫 번째 장면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에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했고 중국은 기권한 것이다. 중국이 기권이라는 특이한 선택을 한 이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안보리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곧바로 표결을 진행해 안보리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고 했다. 즉 중국은 안보리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기권이라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요구가 합리적이었다고 밝혀 러시아의 제안에 대한 지지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계속 긴장되고 있으며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정치적 해결만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입장도 표명하여 사실상 대북 제재의 지속에 부정적인 입장임을 시사했다(중국 외교부 2024a). 요컨대 중국이 비록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기권이라는 표결 방식으로 사실상 러시아와 보조를 맞춰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는 선택을 한 것으로서 북중러 연대가 실질적으로 작동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중국의 태도 변화 논란을 야기한 두 번째 장면은 중러 양국이 5월 16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양국 정상은 ‘중국과 러시아의 수교 75주년 신시대 전면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대한 공동성명(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중국 외교부 2024d). 공동성명에서는 미국을 13번이나 직접 거론하면서 양국간 반미의 연대 의지를 이전보다 더

---

욱 강력하게 표출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인 2022년 3월 시 주석이 독일, 프랑스 정상과 회담 중에 언급한 ‘4개 원칙’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기본 지침으로 제시하면서 형식적으로 ‘중립’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기존의 4개 원칙, 즉 유엔 헌장 취지와 원칙 준수, 각국의 주권·영토 완전성 존중,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 그리고 위기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노력 지지에 더해 ‘균형 있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새로운 안보 프레임 구축’이라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중국 외교부 2024e). 사실상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나토)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가 반영되어 공동성명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폐쇄적인 군사-정치적 동맹이 존재할 여지가 없는 공간”이라며 “우리는 아태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적절한 안보 구조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화답했다(정성조 2024/5/16). 즉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자신들이 우려하는 유럽과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보 기제가 필요하다는 상대의 인식에 적극 공감을 표시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공세에 공동 대응할 동기와 의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과시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을 겨냥하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진정한 다자주의를 통해 다극화한 세계의 구축과 경제 세계화 촉진’도 공동성명에서 강조되었다.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견제하려는 중국의 주장에 러시아가 동조한 것이다.

아울러 중러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북한과의 대결을 고조시켜 한반도 무력 분쟁과 긴장 고조를 낳을 수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한 군사적 위협 행동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중국 외교부 2024d). 2023년 3월 중러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호응해 대화 재개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중국 중앙인민정부 2024). 그런데 2024년 공동성명은 2023년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고 강하게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동맹국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언급하여 사실상 일본과 한국을 향한 견제구를 보내면서 북한에게는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하여 지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연이은 두 장면에서 보여준 중국의 행보는 북중러 연대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 입장에서의 변화의 징후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북중러 연대 구성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이다. 중국은 대북 제재 완화와 북한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에서 러시아와 공조함으로써 사실상 북중러 연대에 동참하는 행보를 보여준 것이다. 북중러 삼자관계에서 중국 중심의 양자간 교류와 협력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

---

에서 중국의 태도 변화의 징후마저 포착되고 있어 한미일을 겨냥한 북중러의 연대가 강화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가 선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III. 향후 북중러 연대의 관전 포인트와 한국의 대비

중국의 태도 변화가 중대한 전략 변화에 기인한 것이고 그로 인해 북중러 연대가 강화될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인 관찰과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현상적으로는 북중러 삼자간 진행되고 있는 연대의 방향과 방식에서의 변화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 예컨대 북중러 관계가 현재와 같은 양자관계 중심에서 진정한 삼자간 협력과 연대의 플랫폼을 형성하면서 발전할 것인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즉 중러, 북러, 북중 등 양자차원의 정상회담을 넘어서 북중러 삼자간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이 제도화 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중러 삼자가 수사적 반미 연대를 넘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적 협력이 진행되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북중러 사이에 유럽 또는 아태지역에서 새로운 안보 기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와 시도가 있는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앞서 중러 공동성명에서 발표한대로 양국은 유럽과 아태지역의 새로운 안보 기제 구축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그렇지만 실제 이 공감대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난제가 적지 않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 못지않게 유럽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아태지역에서의 안보 기제에 참여할 동기와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둘째, 현재 북중러 삼국 공조의 주된 배경은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다. 삼국은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대응해야 하는 목적은 공유하고 있지만 대응의 구체적인 방식과 전략이라는 각론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실제 삼자 협력 추진의 의지와 동력에서의 간극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한편으로는 미국과 대립하고 경쟁하지만 다른 한편 미국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상황관리와 공존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개별 양자관계는 강화하면서도 북중러 연대에는 신중한 이유이다. 결국 북중러 연대의 강화는 향후 미중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향후 더욱 미중관계의 유동성을 예민하게 관찰하고 이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대비가 중요하고 최소한 미중 대립의 소용돌이에 의도하지 않게 과도하게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

---

셋째, 북중러 삼자간 양자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간극이 있으며 이러한 간극이 좁혀지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일보 진전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요 경제협력 대상인 유럽 국가들을 의식하며 가능한한 균형적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다. 시진핑은 2023년 러시아 방문 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총리, 그리고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집행위원장 등을 연이어 베이징으로 초청하는 등 유럽과의 관계에 신경을 썼다. 시진핑은 이번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프랑스 등 유럽 3개국 순방을 통해 유럽과의 관계 관리에 나서면서 균형을 잡고자 했다.

북중관계 역시 최근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상호간 접근의 온도 차가 있다. 예컨대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피로써 맺어진 불패의 친선’이라는 특수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전통우호협력관계’라 일컬으며 상대적으로 통상적인 관계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중국 외교부 2024b). 그리고 북한은 중국을 향해 지속적으로 반미 연대를 역설하지만 중국은 북한과 관계에서 미국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북한(핵) 문제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중국은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 미중정상회담 이래로 중국 외교부의 공식 발표문에는 과거와 달리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거론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만 언급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향해 양국간 국정 운영 경험의 교류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오러지 위원장이 북한 방문시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설명하면서 북중간 발전 연계 강화를 강조했다. 즉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미국 등 제3국에 대한 논의를 최소화하고 양자관계에 치중하고자 한다. 중국은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협력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수교 75주년과 ‘친선의 해’ 행사를 통해서 네 가지 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의 우호를 홍양(弘揚)하는 활동, 단결과 협력을 심화하는 활동,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활동, 그리고 평화롭고 안정한 외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동 활동 등이다(중국 외교부 2024c).

중국은 북한의 도발, 체제 불안정, 그리고 북미관계의 개선 등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북한(핵) 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갈등 전선이 확대되는 것은 원치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빌미가 되고 중국의 주변 안보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향해 ‘전략적 소통’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면에는 북한발 안보 불안을 관리하려는 의

---

도가 있다. 한국은 북중관계에 내재된 복잡하고 미묘한 간극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이 구상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은 미국의 제재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북중러 협력에 소극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 만은 없다. 중국은 러시아가 요구하는 군사적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고, 북한에게는 제재 완화와 경제지원에 적극적이지 않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면서 동시에 유럽국가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아울러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최근 북중러 협력에 보인 중국의 변화된 행보는 일단 러시아와 북한의 요구에 응답하는 차원의 상황적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현 단계에서는 북중러 관계를 한 묶음으로 포괄적으로 이해, 접근하기 보다는 북중, 북러, 중러 세 개의 양자관계의 변화에 더 주목하는 세밀한 접근이 현실적이고 중요하다. 아울러 중국의 이러한 상황적 대응이 구조적 변화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만큼 향후에도 이러한 변화를 예민하게 관찰하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은 현재 직면한 복잡한 딜레마로 인해서 북중러 협력에 참여하는 것과 병행하여 외교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을 향한 외교적 접근도 불가피하며 그 과정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의 참여도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북중러 대 한미일이라는 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중러 연대에 중요한 축인 중국이 내재하고 있는 딜레마적 상황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구상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중러 연대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지만 동시에 세 나라 가운데 삼자 연대의 동기와 의지가 가장 약한 국가이기도 하다. 북한이 전인하고자 하는 북중러 연대의 약한 고리라 할 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공략해야 한다. 한중간 전략적 소통이 긴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행보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중 경쟁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는 해법이 모색되기보다는 오히려 양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북한, 북핵 문제 등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피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도 억지하면서 북한도 관리해야 하는 딜레마에 있다.

따라서 기존의 대중 외교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던 비핵화와 통일을 향한 협력이 갖고 있는 현실적 한계를 직시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관리라는 원론적 공감대를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북한의 도발이 거세질수록 한반도의 불안정 해소라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은 더욱 현실적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미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

---

은 새로운 국면은 우리에게 도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주도적인 행보도 필요하다. 한국이 당사자로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구상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전략과 행동을 취하면서 새로운 외교 공간과 기회를 개척해야 한다. 북한 위협에 직접 노출된 한국이 복잡한 국제정세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중국, 북한에 대해서도 과감하고 주도적인 제안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

---

## 참고문헌

정성조. 2024. “시진핑 ‘우크라진 ‘정치적 해결’ 동의’ 푸틴 ‘亞太 새 안보구조.’” <연합뉴스> 5월 16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6143600083>.

중국 외교부. 2024a. 2024年3月29日外交部发言人林剑主持例行记者会. 3월 29일.  
[https://www.mfa.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202403/t20240329\\_11273630.shtml](https://www.mfa.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202403/t20240329_11273630.shtml).

\_\_\_\_\_. 2024b. 赵乐际同朝鲜劳动党中央政治局常委、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委员长崔龙海会谈.  
4월 11일. [https://www.mfa.gov.cn/zyxw/202404/t20240411\\_11280370.shtml](https://www.mfa.gov.cn/zyxw/202404/t20240411_11280370.shtml).

\_\_\_\_\_. 2024c. 赵乐际在”中朝友好年”开幕式上的致辞（全文）. 4월 12일.  
[https://www.mfa.gov.cn/zyxw/202404/t20240412\\_11281105.shtml](https://www.mfa.gov.cn/zyxw/202404/t20240412_11281105.shtml).

\_\_\_\_\_. 2024d. 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在两国建交 75周年之际关于 深化新时代全面战略  
协作伙伴关系的联合声明（全文）. 5월 16일.  
[https://www.mfa.gov.cn/zyxw/202405/t20240516\\_11305860.shtml](https://www.mfa.gov.cn/zyxw/202405/t20240516_11305860.shtml).

\_\_\_\_\_. 2024e. 习近平同俄罗斯总统普京共同会见记者. 5월 16일.  
[https://www.mfa.gov.cn/zyxw/202405/t20240516\\_11305615.shtml](https://www.mfa.gov.cn/zyxw/202405/t20240516_11305615.shtml)

중국 중앙인민정부. 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关于深化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的联合声明.  
3월 22일. [https://www.gov.cn/xinwen/2023-03/22/content\\_5747726.htm](https://www.gov.cn/xinwen/2023-03/22/content_5747726.htm).

---

■ 저자: 이동률\_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_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8) jspark@eai.or.kr

본 논평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4년 5월 31일  
“북중러 연대에 대한 중국의 전략에 변화가 있는가?”  
979-11-6617-764-4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7길 1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